

# 아이스댄스 임해나-취안에, 주니어그랑프리 우승...한국 최초

프리댄스 99.25점+리듬댄스 62.71점 합해 총 161.96점

이번 대회 전 종목서 메달 수확...남자 싱글 차영현 동메달

한국 아이스댄스의 임해나(18)-취안에(21·이상 경기일반) 조가 한국 선수 최초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해나-취안에 조는 28일(한국시간) 프랑스 쿠르슈벨에서 열린 2022-2023 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기술점수(TES) 54.55점, 예술점수(PCS) 44.70점 등 총 99.25점을 받았다.

전날 리듬댄스에서 받은 62.71점과 합해 총점 161.96점을 기록한 임해나-취안에 조는 프랑스의 셀리나 프라지-장 푸흐노 조(147.66점)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2021-2022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아이스댄스 팀으로는 처음 메이저대회 입상에 성공한 임해나-취안에 조는 올 시즌엔 시상대 꼭대기를 점령했다.

시니어, 주니어를 통틀어 한국 아이스댄스 선수가 ISU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임해나-취안에 조가 최초다.

‘피겨여왕’ 김연아가 등장한 이후 한국 피겨는 세계 무대 남녀 싱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지만, 남녀 선수가 함께 경기를 펼치는 아이스댄스와 페어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1999년 강원 동계아시안게임 아이스댄스에서 양태화-이천군 조가 동메달을 땀고, 2013년 NRW 트로피 아이스댄스 주니어 부문에서 레베카 김-키릴 미노프 조가 금메달을 수확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유럽 선수들이 나서지 않는 동계아시안게임과 그랑프리 시리즈보다 한 단계 아래로 여겨지는 NRW 트로피는 메이저대회와는 거리가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민유라-알렉산더 켈린 조가 출전했지만, 18위에 머물렀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임해나는 캐나다, 한국 이중국적 소유자다. 지난 시즌부터 그는 한국 국적으로 나서고 있다.

취안에는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난 중국계 캐나다인이다.

ISU 주관 대회 페어와 아이스댄스에서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의 국적을 선택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같은 국적 선수들끼리 짝을 이뤄야 한다.

코레오그래픽 스킨(레벨1)으로 연기를 시작한 임해나-취안에 조는 싱크로나이즈드 트위즐을 레벨4로 연기하며 수행점수(GOE) 2.32점을 쟁겼다.

원 퓌트 시퀀스(레벨3)로 연기를 이어간 임해나-취안에 조는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들어올리는 댄스 리프트를 레벨4로 처리했다.

임해나-취안에 조는 스텝시퀀스(레벨3)와 댄스 스킨(레벨4)에서도 고득점에 성공했고, 코레오그래픽 시퀀스(레벨1)와 댄스 리프트(레벨4)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임해나는 경기 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조금은 어설픈 한국말로 “너무 행복하다 오늘은 조금 떨렸는데 자신있게 스케이트를 땀다”면서 “한국말을 잘 못해 죄송하다. 많이 배우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열린 전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남자 싱글에서는 차영현(고려대)이 196.15



아이스댄스 임해나-취안. (사진=ISU 홈페이지)

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김유재(평촌중)가 여자 싱글에서 트리플 악셀 착지에 성공하는 등 185.67점을 얻어 동메달을 땀다.

차영현은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수상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차영현은 다음달 5일부터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치러질 6차 대회에서 정상을 노린다.

뉴스

## 홍지원, KLPGA 생애 첫 승...7년만에 오버파 우승 탄생

지난해 정규리그 입성...데뷔 2년만에 메이저대회에서 첫 우승



홍지원은 28일 강원도 춘천시 제이드펠리스 골프클럽(파72-6777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클래식 2022(총상금 14억원)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종 합계 1오버파 289타로 정상에 섰다

홍지원은 22·요진건설)이 메이저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홍지원은 28일 강원도 춘천시 제이드펠리스 골프클럽(파72·6777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클래식 2022(총상금 14억원)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

종 합계 1오버파 289타로 정상에 섰다.

지난해 KLPGA 투어 정규리그에 입성한 홍지원은 데뷔 2년만에 그것도 메이저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다.

좁은 페어웨이와 120mm에 달하는 긴 러프로 올 시즌 가장 까다롭게 플레이된 이번 대

회에서 홍지원은 나홀로 다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첫날 버디 5개 보기 4개로 1언더파 공동 4위로 시작한 홍지원은 둘째날에는 버디 4개 보기 4개로 이븐파로 타수를 지키며 공동 선두로 뛰어 올랐고, 3라운드에서는 2타를 잃었지만 가장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며 2위 그룹과 3타차 단독 선두로 뛰어 올랐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정확한 티샷과 안정적인 아이언 샷을 선보인 홍지원은 버디 3개에 보기 3개로 이븐 파를 기록하며 최종 합계 1오버파로 우승했다.

홍지원은 지난해에도 공동 3위를 기록한 바 있어 한화클래식이 열리는 제이드펠리스 코스에 강한 면모를 재확인했다.

오버파 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 2015년 박성현이 1오버파로 우승한 기아 자동차 한국여자오픈 이후 7년만이다.

첫 통과 스코어도 9오버파로 지난 7월 맥콜 모나파크 여자오픈에서 기록된 4오버파를 훌쩍 뛰어넘는 올 시즌 최고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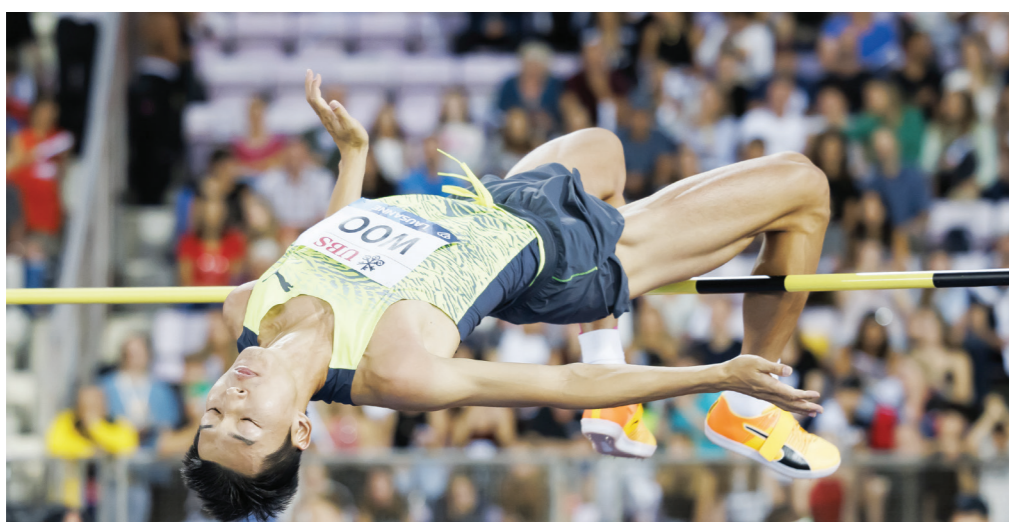
한편 첫날 선두에 올랐던 유서연(219)은 마지막 라운드 7번홀에서 출인원을 기록해 2000만원 상당의 ‘한화생명 연금보험 상품’을 부상으로 받았다.

LPGA투어에서 활약중인 ‘맘 언니’ 지은희(36)와 최근 JLPGA투어에서 우승한 이민영(230)은 이렇게 컷 탈락했다.

뉴스

## 2m20 못 넘은 이상혁, 파이널 시리즈 진출도 좌절

공동 8위 머물러...랭킹 포인트 1점 차로 상위 6명 파이널 시리즈 진출권 확보 실패



이상혁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연맹(IAAF)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해 바를 넘고 있다. 이상혁은 2m15를 넘어 공동 8위로 경기를 마쳤다.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이상혁은 27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연맹(IAAF) 다이아몬드

그 남자 높이뛰기에서 공동 8위에 그쳤다.

1차 시기에서 2m15에서 가뿐하게 날아올랐지만, 2m20을 넘지 못했다. 3차 시기까지 실패한 그는 결국 2m15의 기록으로 경기를 마무

리, 셸비 매튜언(미국)과 공동 8위에 머물렀다. 개인 최고 기록이 실외 2m35, 실내 2m36인 이상혁에 큰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이날 우승은 2m24를 넘은 안드리 프로첸코(우크라이나)가 거머쥐었다. 프로첸코는 2m15, 2m20, 2m24를 모두 1차 시기에 성공했다.

2m24를 넘었지만, 2m20을 1차 시기에서 한 차례 실패했던 무타즈 예사 바십(카타르)이 2위에 올랐다. 2m24를 3차 시도만에 성공한 주문 해리스(미국)이 3위에 자리했다.

‘마지막 관문’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이상혁은 최종 목표였던 파이널 시리즈 진출에도 쓴맛을 봤다.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중 높이뛰기가 열리는 대회는 5개다. 도하와 버밍엄, 로마, 모나코 대회가 치러졌고, 로잔 대회가 마지막이었다.

다이아몬드리그는 각 대회 1-8위에게 랭킹 포인트 8-1점을 차등 지급한다. 남자 높이뛰기의 경우 누적 포인트 상위 6명이 파이널 시리즈에 나설 수 있다.

이상혁은 이번 대회 전까지 누적 포인트 15점으로 랭킹 포인트 4위를 달리고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1점을 얻는데 그치면서 랭킹 포인트 7위(16점)로 밀려났다.

6명에게 주어지는 파이널 시리즈 진출권은 이렇게 놓쳤다.

뉴스



## 사실상 김광현 홀로 도전...1점대 ERA 투수 나올까

2010년 ERA 1.82 류현진 이후 자취 감춰

2010년 이후 자취를 감춘 규정이닝 1점대 평균자책점(ERA) 투수를 올해에는 볼 수 있을까.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가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경우는 역대 26차례 있었다.

1980년대에는 무려 14명이 1점대 이하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투고타저 현상이 극심했던 1986년에는 선동열(0.99), 최동원(1.55), 최일언(1.58), 김용수(1.67), 김건우(1.80), 장호연(1.90) 등 6명이 1점대 이하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1990년대에도 11명이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규정이닝 평균자책점 1점대 이하를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은 현역 시절 ‘국보급 투수’로 불린 선동열이었다.

KBO리그에서 11시즌을 땀 선동열이 규정이닝을 채운 해에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것은 무려 9차례나 된다. 1986년(0.99)과 1987년(0.89), 1993년(0.78)에는 평균자책점이 0점대였다.

2000년대 들어 1점대 평균자책점 투수는 자취를 감췄다. 2000년대에 규정이닝을 채우고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투수는 2010년 당시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평균자책점 1.82를 기록한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유일하다.

경기 수가 늘어나고 투수 분업화가 이뤄진 데다 타고투저 흐름이 이어지면서 1점대 평균자책점 투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올해 SSG 랜더스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이 꿈의 기록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0~2021년 미국 메이저리그를 거치고 돌아온 김광현은 올 시즌 21경기에서 10승 2패 평균자책점 1.93을 기록 중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스트라이크존이 확대 조정되면서 시즌 초반 투고타저 흐름이 이어졌고, 1점대 평균자책점 후보가 여럿 등장했다.

전반기까지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가운데 김광현과 월터 폰트(SSG·1.96)가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했다. 키움 히어로즈의 강속구 에이스 안우진도 전반기까지는 평균자책점 2.02로 역시 1점대 평균자책점이 가시권이었다.

그러나 시즌을 거듭할수록 타자들이 넓어진

스트라이크존에 적응하고 투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도전자가 하나 둘 사라졌다.

정규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어 현재 1점대 평균자책점 도전자는 사실상 김광현만 남았다.

평균자책점 2위인 안우진은 2.26을 기록 중이다. 안우진이 1점대에 진입하려면 앞으로 최소 20%이닝을 자책점 없이 막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평균자책점 2-5위인 에릭 요키시(키움·2.46)와 폰트(2.59), 드류 루친스키(NC 다이노스·2.64)도 1점대 평균자책점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 무대를 경험하면서 노련미까지 더해진 김광현은 올 시즌 빼어난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올 시즌 21차례 등판 중 13경기에서 6이닝 이상을 던지며 2자책점 이하를 기록했다. 올 시즌 한 경기 4자책점이 최다 기록인데 당시 모두 7이닝을 던졌다.

다만 김광현이 후반이 들어 전반기만큼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1점대 평균자책점 도전의 걸림돌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 이후 김광현의 평균자책점은 꾸준히 올랐다. 7월 22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8이닝 무실점을 기록해 평균자책점이 1.52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김광현은 8월 월간 평균자책점이 3.13에 달한다. 이달 3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6이닝 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1.74로 오른 평균자책점은 10일 KT 위즈전(5이닝 2자책점) 이후 1.82로, 17일 KIA 타이거즈전(7이닝 3실점) 이후 1.93으로 올랐다. 23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5이닝 2실점을 기록한 김광현은 자책점은 ‘1’을 기록하면서 1.93의 평균자책점을 유지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는 동안 소소한 이닝이 많지 않았던데다 올 시즌을 앞두고 미국 잔류와 국내 복귀를 고민하다 3월야야 계약을 마쳐 스프링캠프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이 전반기 때의 모습을 되찾아야 2000년대 이후 두 번째 1점대 평균자책점 투수로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광현이 ‘꿈의 기록’을 달성한다면 최우수선수(MVP) 후보로도 거론될 수 있다.